

- 2026년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 -
최종 선정작품 대상 공개검증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III-3. 수상 후보작 검증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 최종 선정작품을 대상으로 부정행위(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표절 의심) 검증을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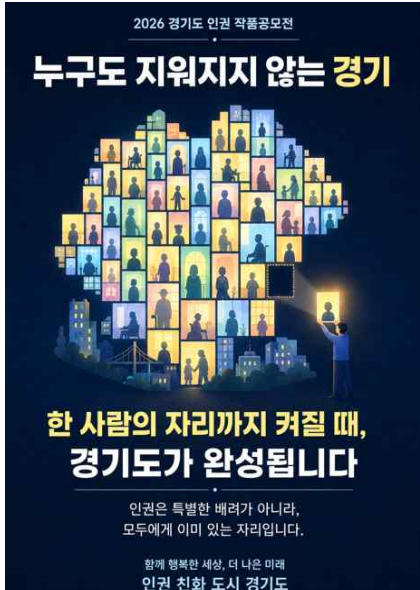
- 1. 대상 : 최종 선정작품 12점 (캘리그래피 4, 포스터 4, 운문(시) 4)
- 2. 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5.(일) (14일간)
- 3. 의견제출 : 담당자 이메일 제출 (yj0003@gg.go.kr)
 - 메일제목 : 2026년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 공개검증 제보
 - 메일내용(붙임 서식에 작성)
 - ① 제보자 성명, 연락처(핸드폰 번호)
 - ② 제보작품 부문, 작품명
 - ③ 해당 작품에 대한 의견, 증빙자료
- 4. 의견활용 : 동일작품 대상 부정행위 제보 접수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5. 최종발표 : 작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 선정 예정(11월 중)

<캘리그래피>

작품명	작품
다름을 잇고, 인권을 품는 경기도	
인권의 공식	

인권이 꽃처럼 피어나는 여기, 경기도	
모두가 걷는 인권의 길, 경기도가 함께 걸읍니다	

<포스터>

작품명	작품
지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경기	

인권은 기본 설정입니다	
편견의 시야를 바꿔보면, ‘인권 친화 도시 경기도’가 있습니다.	

<운문(시)>

작품명	작품
열 자 이내	붙임 참고
이름이 지워지는 날	
최병문 선생님	
인권(人權) 씨의 이름	

붙임 1 운문(시)

열 자 이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는 천천히
자기 이름을 눌렀다

마닐라에서는
한 번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이
서울의 작은 칸에 와서
붙어졌다

성명은 열 자 이내로 입력해 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마우스를 두 번 눌렀다

그는 스페이스바를 지웠다

떨어져 있던 이름들이
붙었다

그래도 붙었다

이번에는
가운데 이름을 하나 지웠다

커서가
그 자리에서 깜빡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돼

나는 묻지 못했다
어디까지가 이렇게인지

마지막 몇 글자를 더 지우자

다음 버튼이 파랗게 켜졌다

통과입니다

기계는 처음으로
그를 알아보았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출석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보았다

열 자 안에 잘 들어온 이름이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그가 지운 사람들은
한 명도 결석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지워지는 날」

처음에는
김삼순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으며
‘엄마’가 되었고
손주를 안으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이름 위에
호칭을 하나씩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치매 3번 어르신, 이동하세요.”

그날
김삼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디선가

평생 수없이 불러 오던
이름 하나가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 느려져도
존엄은 늙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잊었다고 해서

당신의 이름까지
잊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잊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먼저 잊고 있었던 것은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을,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생을.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내일 아침
나는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삼순 어르신.
당신이 잊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평생을 살아온
당신의 이름으로.

최병문 선생님

경비실 앞을 지나며
저는 오래오래
아저씨라고만 불렀습니다

어느 저녁
창가에 붙은 근무표에서

‘최병문’

세 글자가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환히 닦인 유리문이 보였고
비 오는 날 문 앞의 우산꽃이가 보였고
먼저 건네 오던 목례가 보였습니다

다 한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묻지 않아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병문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 글자가 걸어 나와
사람이 되는 것을

그가 웃고
저도 웃고
그가 닦은 유리문도
따라서 환해지는 것을

인권이라는 말은
몰라도 좋았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환해지는 이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이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권(人權) 씨의 이름

아침, 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사원증에 새겨진 이름은
인권
그가 평생 빛으로 품고 살아온 이름이다

지하철 승강장, 문이 열린다
휠체어 한 대가 힘겹게 들어서다
승강장 사이에 걸리고, 닫히는 문에 끼이니
“바쁜 출근길에 무슨 민폐입니까!”
인권 씨는 직장인들의 시간을
방패처럼 든다

점심, 회사 앞 커피숍
키오스크 앞에 발이 줄지어 늘어선다
화면을 누르는 주름진 손길이 늦어지니
“모르겠으면 오지를 마세요!”
인권 씨는 아는 자들의 권리를
망치처럼 휘두른다

오후, 회사 탕비실
젊은 계약직 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제 애인이랑 뭐 했어?”
인권 씨는 서로 잘 알아야 친해진다고 믿으며
부서의 화합을
완장처럼 두른다

저녁, 현관문 앞
기다리던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송장 위, 누군가의 방울이 떨어졌는지
이름 두 글자는 번져 있고
성씨 한 글자만 또렷이 드러난다

수령인 : 무□□

인권 씨는 오늘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으며
상자를 트로피처럼 들어 올린다